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홍보팀

중증장애인의 희망지킴이, 통증 · 근골격계 치료 명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최은석 교수

"생전에 뵙지는 못했지만 외할아버지는 경성의전(5회 ·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따라다니며 외과의사로 일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해방 후 중국 동포들이 탄 귀국선의 선의(船醫)로 입국하셨다는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듣고 자랐죠. 치과의사이신 어머니는 어릴 때 살던 집에서 개원했기 때문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보다 흰 가운을 입은 모습이 익숙했고, 의대에 다니던 형은 군의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최은석 교수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다.

3대째 이어지는 의사 집안, 의사는 천직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최은석 교수는 할아버지부터 3대가 의사인 '의사 가문'에서 자랐다. 어쩌면 최 교수가 직업으로 의사를 택한 것은 자연스럽고 익숙한 선택으로 보인다. 최 교수는 그렇게 물 흐르듯 의사란 직업을 갖게 됐지만, 정작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1986년 의대 졸업 후 양쪽 눈 시력 차이가 심해 전공의가 되지 못하고 갑자기 군 입대를 했어요. 의사면허증은 있었지만 임상 경험이 없어서 현장에서 당황했던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경마장이 된 경기도 과천에 있는 86서울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승마경기장에서 반도핑 담당관으로 근무할 때 일입니다. 관리자 한분이 전신 두드러기가 갑자기 생겨서 실려 왔어요. 얼굴까지 퉁퉁 부어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죠. 후송 병원인 강남성모병원으로 옮길까 하다가 마침 항히스타민제 주사제가 있기에 앰플 하나 용량을 정맥주사 했더니 금방 증상이 사라져 칭찬이 자자했지요. 우쭐한 기분에 선배에게 자랑했더니 그 약은 희석해서 천천히 정맥주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핀잔을 주더군요. 어찌나 아찔하던지…. 환자가 멀쩡한 것이 천만다행이었죠."

최 교수는 그 때 약물사고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잘못된 약 처방으로 환자에게 치명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최 교수에게 재활의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에 대해 물었다.

"본과 4학년 때 서울장애인복지관으로 실습을 나가 다운증후군 아이들이 있던 작업치료실에 들어섰는데 아이들이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부끄럽게도 어정쩡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진료실에서 보니 제가 보기에 큰 차이가 없는 변화인데도 어머니들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깊은 울림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또 군복무 말년인 1988년 제8회 장애인올림픽 선수촌병원 진료지원부장 업무를 담당하며 만났던 선진국의 장애인 선수와 보호자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역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우리 교실 초대 주임교수이신 故 안용팔 교수님께서 "자네 소감은 어떤가"라고 물으셨고, "찾아보면 할 일이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최 교수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병원 안팎으로 바쁜 생활, 그래도 중심은 환자

최 교수는 현재 통증 ·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재활에 집중하고 하고 있다. 오십견, 무릎관절염, 목 허리디스크, 그리고 스포츠 손상 환자들을 주로 진료한다.

매주 목요일에는 관절센터에서 골절이나 힘줄 파열로 수술 받은 환자들의 재활치료를 하며, 뇌손상 또는 척수손상 환자들의 재활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현재 대한재활의학회 고시위원장을 맡고 있고,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직전 회장을 역임했다. 대한스포츠의학회 정회원 및 한국통증중재시술연구회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대한임상통증학회 제12대 회장에 취임했다.

최 교수에게 쉴 틈 없이 바쁘게 사는 이유를 물었다. "학회 입장에서 보면 저희 세대가 각 학교 재활의학교실의 중추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 중증장애인이나 그들의 보호자로 산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거든요. 국가와 우리 사회가 이들의 어려움을 진실로 공감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밖에서도 정부나 공공기관의 장애인, 특수교육, 노인, 복지 관련 다양한 사업에 참여와 역할을 요구받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병원 경영진의 배려와 동료 교수들이 커버해줘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결론은 환자였다. 어떤 질문에도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최 교수의 눈빛은 비장하기까지 했다.

미국 뉴저지의대 연수 및 3년간 객원교수 활동

최 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2002년 아내(현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이연수 교수)와 함께 미국의 유수한 재활의학센터인 뉴저지의치대 및 캐슬러 재활의학연구소에서 1년간 연수를 했다. 그리고 2002년 1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뉴저지의대 재활의학과 객원부교수로 활동했다.

"미국 연수 시절 척추중재술의 참관과 해부실습을 충분히 할 수 있었기에 귀국 후 곧바로 임상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구성원들의 공론이 모여져 의사가 결정되는 시스템은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재활의학과는 주로 간호사와 일하는 다른 임상과와 달리 타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과 팀을 이뤄야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해요. 뇌졸중, 허리디스크, 절단, 소아재활 등 다양한 환자에게 여러 의견들을 조정해 개인별로 현실적인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자질 또한 중요한데, 연수시절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경험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최 교수는 나이를 먹을수록 소소한 것에 재미를 느끼고 마음이 유연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슬럼프가 올 때마다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땐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굴러간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의대 교수의 삶이 힘들 땐 의암 박지원 선생의 一士讀書澤及四海(일사독서 택급사해)를 떠올립니다. 이제 남은 삶은 정년 때까지 후회 없이 일하고, 끝나면 재취업 않고도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길 바래요. 가족과 함께…."